

스터디채널
동영상강의
www.study.ch.co.kr



“한 권으로 끝내는 감정평가사 민법총칙

고용수 편저

- ✓ 시험에 필요한 핵심내용 완벽정리
- ✓ 최근 출제경향이 반영된 문제풀이 수록
- ✓ 최근 제정/개정법령 완벽 반영
- ✓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판례 총망라

民法總則

북스케치

Preface 머리말

감정평가사 시험 민법총칙에 대한 기출문제 경향과 난이도를 충분히 참작하여, 기본 조문의 정확한 이해와 다수의 판례들을 집중분석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기출문제에 선택된 시험 지문을 하나하나 이해하여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자는 난이도를 감정평가사 시험에 초점을 두어 명확·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서술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나, 향후 보완해 가기로 하며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 고득점 공부방법 】

1. 법조문의 명확한 해석
2. 관련 판례 숙지
3. 기출문제 해독

이러한 3단계 논리작업으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기출문제 21회부터 29회까지 수록하였으니 충분히 해독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저자의 동영상 강의를 가급적 참조하여 시험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11월 고 용 수

Contents

민법총칙

제01장 | 민법 일반

- ▶ 제1절 민법의 의의 6
- ▶ 제2절 민법의 법원 7
- ▶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10
- ▶ 제4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11
- ▶ 제5절 민법의 적용범위 12

제02장 | 권 리

- ▶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3
- ▶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7
- 📖 문제 기출문제 28

제03장 | 권리의 주체

- ▶ 제1절 총 설 33
- ▶ 제2절 자연인 33
- ▶ 제3절 법 인 60
- 📖 문제 기출문제 92

제04장 | 권리의 객체

- ▶ 제1절 총 설 109
- ▶ 제2절 물 건 109
- 📖 문제 기출문제 118

제05장 | 권리의 변동

- ▶ 제1절 총 설 122
- ▶ 제2절 법률행위 124
- ▶ 제3절 기 간 205
- ▶ 제4절 소멸시효 207
- 📖 문제 기출문제 230

감정평가사

민법



제 1 절

민법의 의의

I. 민법의 의의

민법은 실질적으로는 사경제 주체로서 당사자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형식적으로는 「민법전」을 의미한다. 즉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을 말한다.

II. 실질적 민법

1. 민법은 사법이다.

판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6.19.자 2006.11.17 결정). 그러나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1997.4.11.선고 96누17325 판결).

- (1) 사법의 경우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전제로 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리가 지배되며, 공법의 경우 헌법을 기초로 한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지배되며, 법률에 근거한 법의 지배 원리가 적용된다.
- (2) 사법의 내용은 총칙편과 재산관계(물권편, 채권편)와 가족관계(친족편, 상속편)로 나누어진다.

2. 민법은 일반법이다.

3. 민법은 권리·의무에 관한 실체법이다.

기출문제

0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 ①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②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③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④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⑤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①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7.21.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판결).

0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22회』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 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③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⑤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징계면직 일로부터 5년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신의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한권으로
끝내는
감정평가사
민법총칙”

생	각	을		스	케	치	하	다
세	상	을		스	케	치	하	다

북스케치

정가 15,000원



9 791196 365776
ISBN 979-11-963657-7-6